

치 사

불교중앙박물관이 개관한 지 벌써 5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문화재를 중심으로 여러 전시를 열었던 불교중앙박물관은 佛·法·僧 三寶展처럼 정보박물관이 아니면 어디서도 기획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전시를 조직해 냈으므로, 이름에 어울리게 불교계 중앙박물관으로서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이번에는 정보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에 얹힌 곡절과 사연을 담아 <불교문화재 다시 읽기-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라는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노고의 결실을 신뢰로 치하하며 불자들은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는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역사와 더불어 부침을 거듭해 왔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역시 격동의 한국사와 그 궤를 함께하면서 왜색 불교의 청산과 정체성 확립, 전근대성과 비민주성의 극복,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이처럼 험난한 불교사의 전개에 따라 우리의 정보문화재들도 시련과 수난을 겪게 되어, 특히 근대 이후 수많은 정보문화재들이 약탈, 도난당했으며 소멸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듯, 정보문화재의 유출을 막고 전쟁의 불길에서 구해내며, 파괴되고 훼손된 것들을 회복하는 노력들도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종단 또한 이에 발맞추어 정보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다각도로 힘써 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이면 그렇게 걸어온 자취를 한번쯤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해 보아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 마침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되찾고 되살린 정보문화재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민과 사부대중들께 펼쳐 보이는 전시를 갖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전시가 정보문화재의 소중함, 그 관리와 보존의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문화재 보존에 애쓰시는 관계당국, 여러 박물관과 연구소, 각급 사찰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문화재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전시 준비를 위해 애쓴 박물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